



Cover Story

'FLEUR DE LIS,' 일부 발췌

로버트 리드 John Robert Rietz Jr

로버트 리드는 프랑스 인상파로서 훈련받은 'Ten American Painters'의 창립멤버로, 1885년부터 1889년까지 파리에서 공부했고 뉴욕에 돌아와 활발한 활약을 펼쳤다.

그는 화사한 색채감으로 따뜻한 풍경 속에 놓여 있는 여인들을 많이 그렸는데 그 중 하나인 이 작품은 여성의 하얀 드레스에서 포착해낸 푸른 색감과 푸른 꽃잎의 빛깔이センチ멘탈한 분위기를 상기하면서도 어두워 보이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Market Watch

2020

January

Vol. 16

Korea Venture Investment Corporation
Monthly Journal

중소벤처기업 투자·M&A 성공 사례

자동차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글로벌 포지션을 꺾은 투자의 정공법 답안지 스트라드비전 (STRADVISION)

Prologue

Many of life's failures are people who did not realize how close they were to success when they gave up.

“인생의 실패 중 대부분은 사람들이 포기하는 시점에 그들이 얼마나 성공에 가까운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난다.”

- Thomas A. Edison

토마스 에디슨

제너럴 일렉트릭의 전신 에디슨 제너럴 일렉트릭의 설립자이자 '발명왕'으로 더 널리 알려진 에디슨의 탐구욕과 발명에 대한 열정은 달걀을 어미닭 대신 품었던, 누구나 한번쯤 들었을 법한 일화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수명이 짧은 백열전구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1878년부터 시작한 연구는 40시간 이상이나 계속해서 빛을 내는 전구를 만들어 내는 데 성공한 1879년 10월 21일까지 수백번이나 지속되었다. 그 과정에서 그는 필라멘트의 재료로 적합한 원료가 무엇인지 알아내기 위해 같은 실험팀의 수염이나, 머리카락 등까지 채취했으며 대나무가 적합하다는 사실을 발견한 뒤에는 일본 교토 산지의 나무가 가장 훌륭하다는 것을 알아내 교토까지 가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

KVIC
MarketWatch
관련 유의사항

KVIC MarketWatch는 모태펀드 등의 운용 성과를 공개하여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산업 구조를 고도화 함으로써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벤처투자 주식회사가 작성한 것입니다. 본 보고서는 특정 기업에 대한 투자 추천 또는 권유를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지 않았으므로 본 보고서의 어떤 내용도 투자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본 보고서 내용을 근거로 한 투자 결과에 대하여 당사는 일체의 책임이 없음을 밝힙니다. 한편, 당사는 본 보고서 내용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본 보고서에 기재된 정보와 의견은 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 및 그에 기재된 내용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당사에 있습니다. 언론사가 보도의 목적으로 본 보고서에 포함된 정보를 인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보고서의 내용 및 이를 통하여 지득 또는 파생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무단 인용, 복제, 변형, 배포, 게시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합니다. 또한 본 보고서와 관련하여 한국벤처투자(주)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는 공개하기 어려움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
January

Vol. 16

KVIC MarketWat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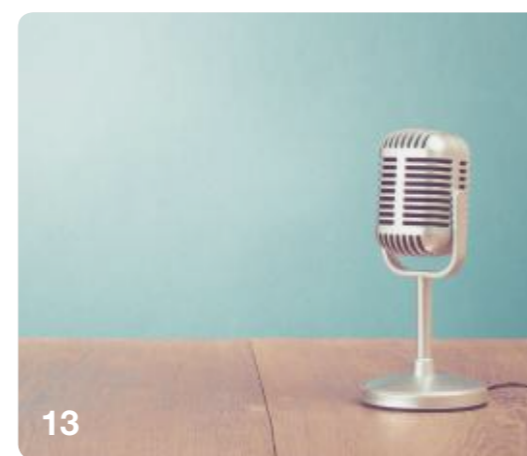
「KVIC MarketWatch」는 민간 주도의 벤처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한국벤처투자(주)가 한국모태펀드를 운용하며 쌓아온 시장 정보를 민간과 공유하기 위해 발간하는 월간 저널입니다.

Contents



02

02 모태 출자펀드
결성, 투자, 회수 동향



13

13 중소벤처기업
투자·M&A 성공 사례

모태 출자펀드 결성·투자·회수 동향

해당 보고서는 매월 발간되며,
이번 호에서는
2019년 12월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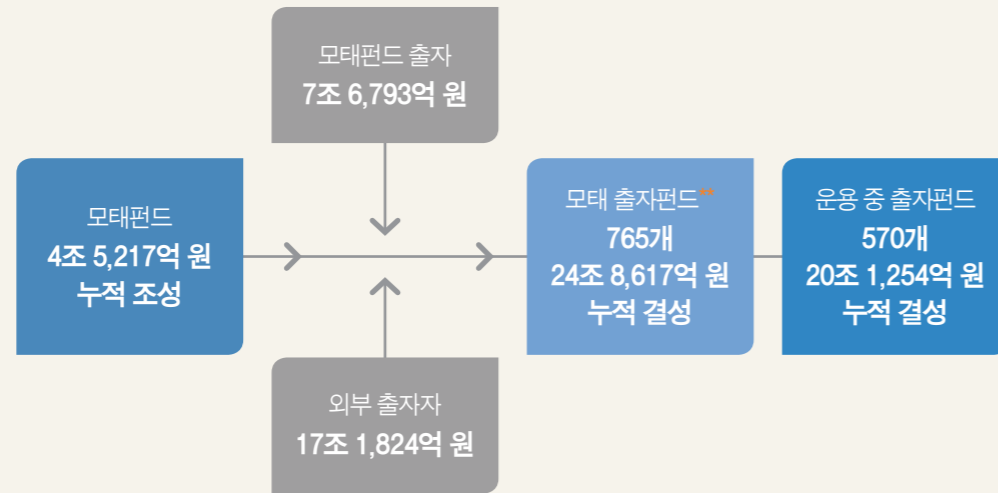


01

모태펀드 개요

2019년 12월 말 현재 한국모태펀드(이하 '모태펀드')의 누적 조성재원은 총 4조 5,217억 원이며, 17조 1,824억 원의 외부출자금을 유치하여 누적으로 24조 8,617억 원 규모, 총 765개 출자펀드를 결성하였다. 이 중 운용 중인 출자펀드는 570개, 20조 1,254억 원 규모이다. 모태펀드 설립 이후 현재까지 765개**의 출자펀드를 통해 6,035개사*에 총 18조 1,753억 원의 투자가 집행되었다.

그림 1 모태펀드 운용 현황



* 전체 투자실적은 업체 수 중복을 제거한 수치

** 창업투자조합(창투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KVF),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PEF), 기업구조조정조합(CRC), 개인투자조합



모태펀드 성과

모태펀드에 4조 5,217억 원을 출자하여 총 765개,
24조 8,617억 원 규모의 출자펀드를 조성



모태펀드 출자금 대비
승수효과는 5.5배

02

모태 출자펀드 결성

모태 출자펀드
신규 결성 조합
(2019년 12월)

2019년 12월 신규 결성 펀드는 총 19개, 4,055억 규모다.

이 중 가장 큰 규모로 결성된 펀드는

'KB-UTC 혁신 기술금융 벤처투자조합(GP:유티씨인베스트먼트)'으로 508억 규모다.

표 1 2019년 12월 신규 결성 모태 출자펀드

단위: 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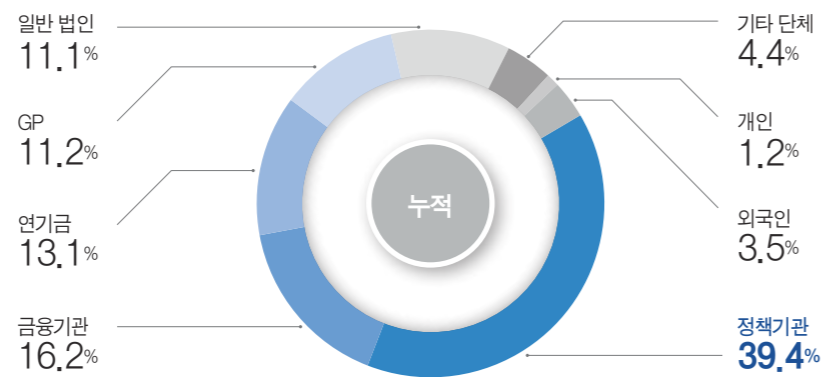
계정	성격	조합명	조합유형	대표 운용사	결성 총액	모태 약정	결성일
과기 정통	디지털콘텐츠 해외 진출	이에스6호 디지털콘텐츠 글로벌펀드	창투	이에스인베스터	150	105	12.22
과기 정통	실감 콘텐츠	스마일게이트 엑스알 콘텐츠 투자조합	창투	스마일게이트 인베스트먼트	150	105	12.30
관광	관광기업 육성	NICE 융합관광 신기술투자조합	신기술	나이에프앤아이	220	130	12.29
교육	대학창업	송실대 SUJI 제1호 개인투자조합	개인 투자조합	송실대학교기술지주	17	12	12.25
문화	청년콘텐츠	미시간 글로벌콘텐츠 투자조합 7호	KVF	미시간벤처캐피탈	190	106	12.05
문화	게임	케이제이앤 1호 게임전문 투자조합	KVF	케이제이앤 투자파트너스	300	150	12.29
중진	민간 제안	린드먼 글로벌 4차산업혁명 투자조합 제15호	KVF	린드먼아시아 인베스트먼트	501	150	12.19
중진	LP지분 유동화	얼머스 KVIC 유동화전문 투자조합	신기술	얼머스인베스트먼트	300	100	12.26
중진	LP지분 유동화	피씨씨-우리 LP지분 유동화 펀드	신기술	포스코기술투자	260	100	12.30
지방	지방기업	포스텍 홀딩스 3호 투자조합	개인 투자조합	포항공과대학교 기술지주	50	30	12.02
지방	지방기업	케이앤 지방상생 일자리창출 투자조합	창투	케이앤투자파트너스	154	87	12.29
지방	지방기업	세종 강소기업육성 투자조합 2호	창투	세종벤처파트너스	100	47	12.30
특허	특허기술 사업화	KB-UTC 혁신 기술금융 벤처투자조합	KVF	유티씨인베스트먼트	508	41	12.04
특허	IP 창출·보호	PNP IP Value Creation 펀드	KVF	피앤피인베스트먼트	170	75	12.23
특허	IP 창출·보호	IDV IP STAR 투자조합	KVF	아이디벤처스	300	150	12.26
혁신모험	농수산벤처 (수산일반)	IDV-IP 수산전문투자조합 2호	KVF	아이디벤처스	150	53	12.02
혁신모험	창업 초기	리구나 창업초기 투자조합 제2호	창투	리구나인베스트먼트	120	70	12.29
혁신모험	농수산벤처 (수산일반)	마이다스동아-엔에스씨 수산펀드 2호	창투	마이다스동아 인베스트먼트	200	70	12.30
환경	미세먼지 해결	2019 모태 이엔 클린 에어펀드	신기술	이엔인베스트먼트	215	150	12.29

출처: 한국벤처투자

**모태 출자펀드
출자자 구성
(누적)**

2019년 12월 현재 모태 출자펀드의 출자자 구성(누적)은 [그림 2], [표 2]와 같다. 모태펀드를 포함한 정책기관이 9조 7,913억 원(39.4%)을 출자하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은 금융기관 4조 202억 원(16.2%), 연기금 3조 2,516억 원(13.1%)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신규 결성된 출자펀드의 경우, 정책기관의 출자규모가 1조 1,522억 원으로 가장 컸으며, 금융기관(4,316억 원)이 그 뒤를 따랐다.

그림 2 모태 출자펀드 출자자 구성 현황(누적)



출처 : 한국벤처투자

표 2 모태 출자펀드 출자자 구성 현황(2019년 12월, 누적)

구분	출자자 구성 (단위: 억 원)								합계
	정책기관	금융기관	연기금	GP	일반법인	기타단체	개인	외국인	
2019.12	11,522	4,316	1,430	2,519	3,655	1,541	194	1,732	26,909
누적	97,913	40,202	32,516	27,769	27,664	10,978	2,989	8,587	248,617

조합원 구분	상세 분류(KVCA 기준 참고)
정책기관	정부, 지자체, 모태펀드, 기타모펀드
금융기관	은행, 보험, 증권, 기타 금융기관
연기금	연금, 공제회
GP	창투사, 신기술, LLC 등 업무집행조합원
일반법인	영리 목적의 법인
기타 단체	협회, 학교법인, 종교단체, 재단, KIF투자조합, 성장사다리펀드
개인	일반개인
외국인	외국 소재 개인 및 법인

출처 : 한국벤처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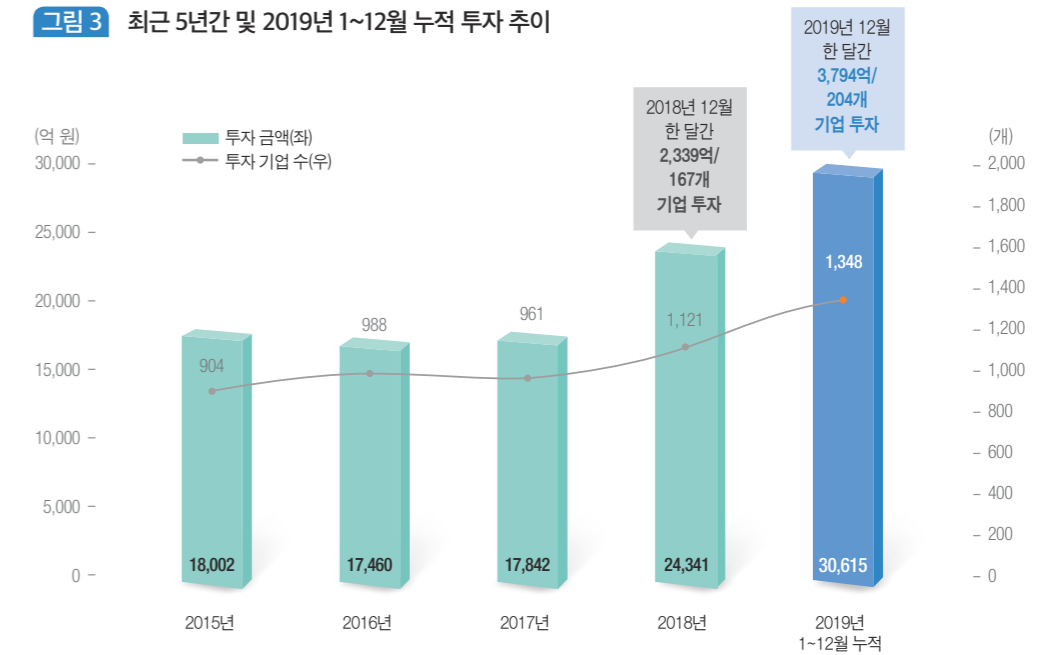
03

모태 출자펀드 투자

**모태 출자펀드
신규 투자 동향
(2019년 1~12월)**

2019년 1월~12월 기간 동안 349개 모태 출자펀드가 1,348개 기업에 총 3조 615억 원을 투자했으며, 전년 같은 기간 대비 금액 기준으로 25.8%, 기업 수 기준으로는 20.2% 증가했다.

그림 3 최근 5년간 및 2019년 1~12월 누적 투자 추이



출처 : 한국벤처투자

* 2019년 12월 말 기준 데이터

** 2015~2018년 투자금액은 해당 기말시점 고정 금액

**투자 금액
상위 기업 및
업종별 투자 현황
(2019년 12월)**

2019년 12월 한 달간, 모태 출자펀드에서 투자한 전체 투자 건을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1개의 투자기업당 1.3개 펀드가 18.6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투자금액 상위 10개 기업은 기업당 평균 130.8억 원의 투자를 유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소프트웨어 18.0%(684억 원), 의료용 물질/의약품 16.4%(623억 원), 도소매업 11.2%(426억 원), 섬유/의복/가죽 8.3%(314억 원), 전문 서비스 8.0%(305억 원) 순으로 투자가 이루어졌다. 투자유형별로는 우선주 56.7%, 보통주 32.2%, CB 6.6%, 프로젝트 투자 4.0%, BW 0.5%의 비중으로 투자가 이루어졌다.

표 3 2019년 12월 모태 출자펀드 투자 금액 상위 10개사

단위: 개, 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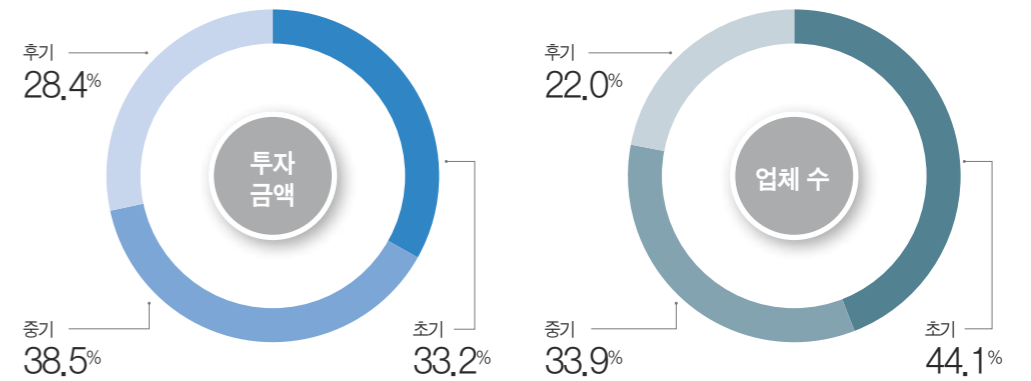
순위	투자기업명	업종 분류	투자 출자펀드 수	투자금액
1	OOOOO	섬유/의복/가죽	1	312
2	OOOOO	소프트웨어	1	151
3	OOOOO	도소매업	1	147
4	OOOOO	화학물질/제품	2	120
5	OOOOO	소프트웨어	5	120
6	OOOOO	전문 서비스	4	114
7	OOOOO	컴퓨터/주변장치	1	104
8	OOOOO	의료용 물질/의약품	2	100
9	OOOOO	영상	2	70
10	OOOOO	의료용 물질/의약품	1	70

출처: 한국벤처투자

**업력별
신규 투자
(2019년 1~12월)**

2019년 모태 출자펀드 신규투자를 업력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창업 후 3년 이내 초기기업에는 1조 156억 원(33.2%), 3년 초과 7년 이하인 중기기업에 1조 1,774억 원(38.5%), 창업 후 7년 초과된 후기기업에 8,685억 원(28.4%)이 투자되었다. 반면, 업체 수* 기준으로 업력별 신규투자를 살펴보면 초기기업(44.1%), 중기기업(33.9%), 후기기업(22.0%) 순이다.

그림 4 2019년 12월 모태 출자펀드 업력별 신규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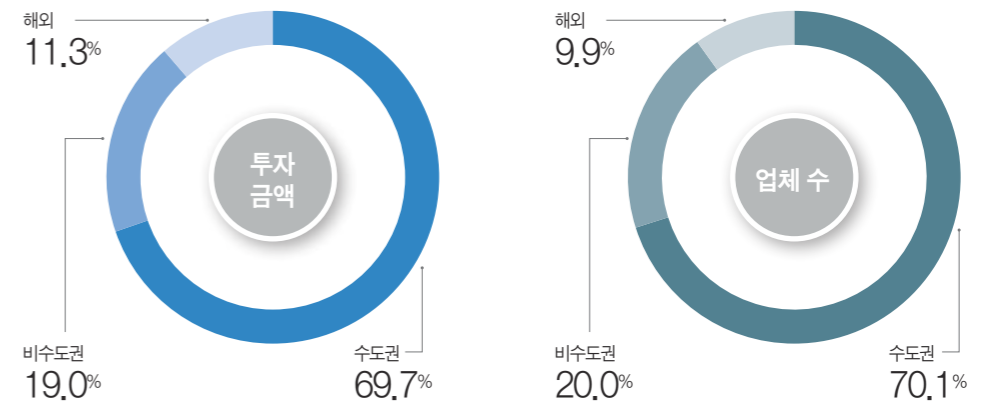
출처: 한국벤처투자

* 총 업체 수 1,348개(조합 간 업체 수 중복을 제거한 수치)

**지역별
신규 투자 및
업종별 신규 투자
(2019년 1~12월)**

2019년 모태 출자펀드 신규투자를 지역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서울, 경기,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기업에 대한 투자가 2조 1,342억 원(69.7%)으로 가장 높았고, 그 외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투자는 5,820억 원(19.0%), 해외 소재 기업 투자는 3,453억 원(11.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서울 소재 기업 투자가 1조 6,249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은 경기 소재 기업 투자 4,334억 원, 해외 소재 기업 투자 3,453억 원 순이다.

그림 5 2019년 12월 모태 출자펀드 지역별 신규 투자



출처: 한국벤처투자

* 총 업체 수 1,348개(조합 간 업체 수 중복을 제거한 수치)

04

모태 출자펀드 회수

모태 출자펀드 회수 동향 (2019년 1~12월)

2019년 1월~12월 기간 동안 355개 모태 출자펀드가 983개 기업에 대해 총 1조 7,966억 원(회수원금 9,154억 원, 회수수익 8,812억 원)을 회수하며 투자 원금 대비 2.0배의 회수 수익배수를 기록했다. 전년 같은 기간 대비 회수 규모는 금액기준으로 17.1% 감소, 기업 수 기준으로는 3.6% 감소하였다.

2019년 모태 출자펀드 신규투자 비중이 가장 높은 업종은 ICT 서비스 업종으로 총 8,071억 원이 투자되어 전체 투자 규모에서 26.4%를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바이오/의료 업종 7,642억 원(25.0%), 유통/서비스 5,523억 원(18.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업체 수 기준으로는 ICT 서비스(25.3%), 유통/서비스(19.2%), 바이오/의료(18.7%) 순이다.

그림 6 2019년 12월 모태 출자펀드 업종별 신규 투자



번호	구분	비중(금액)
1	ICT 서비스	26.4
2	바이오/의료	25.0
3	유통/서비스	18.0
4	영상/공연/음반	8.2
5	기타	8.0
6	전기/기계/장비	5.3
7	ICT 제조	3.4
8	화학/소재	2.9
9	게임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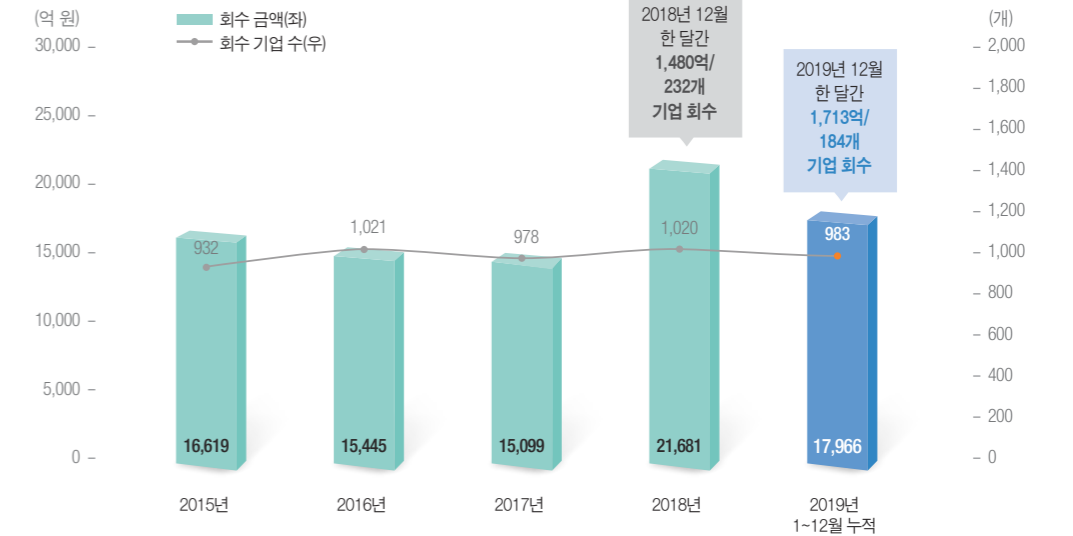


번호	구분	비중(업체)
1	ICT 서비스	25.3
2	유통/서비스	19.2
3	바이오/의료	18.7
4	영상/공연/음반	13.0
5	기타	7.0
6	전기/기계/장비	6.1
7	ICT 제조	3.9
8	화학/소재	3.5
9	게임	3.3

출처 : 한국벤처투자

* 총 업체 수 1,348개(조합간 업체수 중복을 제거한 수치)

그림 7 최근 5년간 및 2019년 1~12월 누적 회수 추이



출처 : 한국벤처투자

* 2019년 12월 말 기준 데이터

회수 금액 및 업종별 회수 동향 (2019년 12월)

2019년 12월 한 달간, 모태 출자펀드의 각 투자 기업 회수 건 중 최대 회수총액을 기록한 건은 190.9억 원을 회수하였고, 투자원금 대비 최대 회수 수익배수를 기록한 건은 23.0배를 기록했다. 업종별로는 의료용 물질/의약품 28.5%(489억 원), 소프트웨어 23.8%(407억 원), 게임소프트웨어 11.5%(197억 원), 도소매업 6.3%(108억 원), 의료기기 4.4%(76억 원) 순으로 회수가 이루어졌다.

모태 출자펀드
투자 기업 IPO
현황
(2020년 1월)

모태 출자펀드가 투자한 기업 중 2020년 1월 말 현재 신규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모태 출자펀드 투자 기업은 12개사이다.

표 4 2020년 1월 모태 출자펀드 투자 기업 상장 추진 현황

단위: 억 원

투자 기업명	시장 구분	기업 설립 연월	진행 상태	주요 제품/서비스
에스씨엠생명과학	코스닥	2014. 7	심사 승인	줄기세포치료제
압타머사이언스	코스닥	2011. 4	심사 승인	압타머 항체치료제
서남	코스닥	2004. 11	심사 승인	초전도 선재
위세아이텍	코스닥	1990. 10	심사 승인	CRM 솔루션
엔에프씨	코스닥	2012. 4	심사 승인	화장품 원료
메타넷엠씨씨	코스닥	1999. 7	심사 승인	Contact Center 아웃소싱 서비스
미투젠	코스닥	2016. 9	심사 승인	모바일 소셜 카지노 및 카드 게임 개발 및 운영
이루다	코스닥	2006. 11	심사 중	레이저, 고주파 의료기기
위더스제약	코스닥	2005. 1	심사 중	제네릭 의약품
에이비온	코스닥	2007. 4	심사 중	동반진단 기술 기반 바이오신약
티씨엠생명과학	코스닥	2009. 8	심사 중	유전자진단 액상기반 세포검사 장비
듀켄바이오	코스닥	2002. 11	심사 중	방사성의약품, PET/CT 공동운영

출처 : KRX 상장공시시스템

* SPAC합병 제외, 코넥스-코스닥 이전상장 포함

중소벤처기업 투자·M&A 성공 사례



대기업·중견기업 또는
유명 벤처기업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거나,
M&A가 된 성장성 있는 투자기업을 발굴하여
성공사례 시리즈로 소개합니다.

자동차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글로벌 포지션을 꺾은
투자의 성공법 답안지

스트라드비전(StradVision)

이선영 최고운영책임자(COO) & 김형태 이사(CPA)



자동차업계 자율주행 기술이 선보여진지는 오래다. 이 뛰어난 기술이 상용화될 수 있도록 정교하게 다듬는 것이 관건인 시점. 그 핵심은 역시 '안전'에 있다고 본 기업이 있다. 자율주행 시의 불안요소를 철저히 제거하자는 마음으로 집요하게 기술 개발을 거듭하고 있는 스트라드비전이다. 후발주자로 출발해 자율주행 업계를 선도하게 된 이들의 행보에는 이들의 가능성을 알아보고 투자를 아끼지 않았던 투자자들의 지원이 있었다.

간결하고 유연한 구조의 SVNet, 세계를 호령하다

스트라드비전은 지난 2월 25일 독일 슈투트가르트 아레나 2036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했다. 메르세데스-벤츠의 모기업인 다임러 그룹이 주최하는 스타트업 협업 플랫폼 '스타트업 아우토반'의 Selection Day에 김준환 대표가 발표자로 나선 것이다. 행사에서 김 대표는 스트라드비전의 대표 기술이라 할 수 있는 'SVNet' 객체 인식 솔루션의 우수성과 자동차 시장에서의 사업적 가치에 대해 발표했다. 이에 앞서 1월에는 미국 라스베이거스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된 'CES 2020'에 참가해 해당 기술을 선보인 바 있다. 이렇듯 스트라드비전의 저력은 해외에서 극명하게 확인되고 있다. 매출의 절반 이상이 해외 시장에서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중국과 독일 시장에서 각광받고 있다. 2019년 8월 중국 업체와의 양산을 시작으로 현재는 중국과 독일 양국에서 5개의 자동차 양산 프로젝트가 출시를 기다리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레벨 4 자율주행 버스 기술 개발을 위해 글로벌 Tier 1 공급업체와 파트너십을 맺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향후

스트라드비전 History

2014

10월 설립(대표 전봉진)
PD algorithm 논문 발표
-「NIPS 2014」 게재

2015

03월 Mobile World Congress 참가-PD/TDR 데모
04월 ARM, Embedded Vision Alliance 참여
09월 iCDAR 1위 석권-Text Detection&Recognition 부문
12월 'Hyundai Autron Project' 수주

2016

- 01월 CES 첫 참가 PD w/ LIDAR 데모
KPMG Auto Show 참가-ADAS 솔루션 소개
- 04-05월 컨소시움 참가-MWC, TI Korea Tech Day,
Embedded Vision Summit (PD@TI TDA2X)
- 06월 CVPR 논문 발표
- 10월 R-Car Forum 참석-OD & R for ADAS@R-CAR V2H
- 11월 자동차 After Market 계약 수주-Thinkware, Movon

2017

- 01월 외부 초기투자 유치-현대자동차 등
Full-scale Project 시작-한국, 일본
컨소시움 참가-CES, EVS and NVIDIA GTC
- 08월 Pre-A Round 투자 유치-LG 전자 외

수만 대의 레벨 4 자율주행 버스가 운전자 없이 프랑스와 독일의 정해진 영역 내에서 운행될 예정이다.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SVNet'은 심층 신경망(DNN)과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물체, 보행자, 다른 차량을 실시간 탐지하는 소프트웨어다. 대량의 영상 데이터로 인공지능을 훈련시키는 '딥 러닝' 기술을 토대로 개발됐다. SVNet External, SVNet Tools를 포함하는 이 소프트웨어 기술은 자동차의 하드웨어와 카메라를 이용해 운전자의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물을 감지하며 사고 위험을 알린다. 또한 밤중이나 눈, 비 등으로 날씨가 나쁜 경우에도 차선과 다른 차량들의 급격한 차선 변경 및 차량 속도 등을 감지해 충돌을 방지한다. 뿐만 아니라 딥 러닝을 통해 고객의 환경 및 요구사항에 맞춘 다양한 시나리오를 반복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더 안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다. 이처럼 유연



하고 경량화된 구조가 국내를 넘어 해외 시장을 사로잡은 비결이다.

김형태 이사(이하 CPA)는 또 다른 강점으로 플랫폼 최적화를 꼽았다. 자동차업계 Tier-1과 OEM들이 각기 선호하는 반도체의 종류는 다양하다. 업계 80%의 독보적 점유율을 가진 이스라엘의 비전(Vision)기술업체 '모빌아이(Mobileye)'의 경우,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와 반도체, 카메라를 하나의 세트로 판매하여 고객사에서 자체 기술력을 갖고 있어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이에 스트라드비전은 맞춤형 플랫폼 개발과 카메라의 별도 추가 제작을 가능하게 해 고객사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있다.

“기존 딥 러닝 시스템은 인식 성능은 좋지만 많은 계산량을 필요로 해 저비용 반도체 칩으로는 구동할 수 없었습니다. 스트라드비전은 성능은 그대로인데 가볍고 빠른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저비용 반도체 칩으로도 구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까지 8개 브랜드의 14가지 플랫폼에 기술을 적용했고, 비용을 낮춰 일반 자동차에도 사물 인식 기술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했죠.”

치솟는 기업가치, 그럼에도 기꺼이 손을 내민 투자사들

스트라드비전이 지금처럼 세계 시장으로 무한정 뻗어나가기까지는 투자사들의 힘이 클 수밖에 없었다. 2017년 3월 팁스(TIPS) 프로그램에서 현대자동차로부터 창업보육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해 총 165억 원에 이르는 자금을 조달했다. 이때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현대모비스, LG전자, 한화투자증권, 일본계 벤처캐피탈인 글로벌브레인 등이 투자사로 참여했다. 특히 80억 규모의 큰 투자로 당시 업계에서도 이슈가 됐던 현대모비스가 큰 힘이 됐다고 김형태 CPA는 말했다.

2017년 3월 팁스(TIPS) 프로그램에서 현대자동차로부터 창업보육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시리즈 A 투자 유치를 통해 총 165억 원에 이르는 자금을 조달했다. 이때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현대모비스, LG전자, 한화투자증권, 일본계 벤처캐피탈인 글로벌브레인 등이 투자사로 참여했다. 특히 80억 규모의 큰 투자로 당시 업계에서도 이슈가 됐던 현대모비스가 큰 힘이 됐다고 김형태 CPA는 말했다.



“현재는 현대모비스가 많은 벤처들에 투자하고 있지만, 당시에는 현대모비스에서 일종의 책임의식을 갖고 투자를 진행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일로 임직원들이 더욱 개발에 고취되었고, 현대모비스가 추구하는 기술 전문성과 열정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현대모비스가 많은 벤처들에 투자하고 있지만, 당시에는 현대모비스에서 일종의 책임의식을 갖고 투자를 진행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일로 임직원들이 더욱 개발에 고취되었고, 현대모비스가 추구하는 기술 전문성과 열정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이선영 최고운영책임자(이하 COO)도 덧붙였다. “현대모비스는 오랜 시간 함께한 만큼 스트라드비전의 기술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유저의 입장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기술이 앞으로도 꼭 필요하고 성장할 것

이라는 점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압니다.” 현대모비스가 투자한다는 소식에 다른 투자자들도 함께 참여하겠다는 의견을 보내왔다. 스트라드비전 입장에서는 그간의 노력에 대한 인정을 받은 느낌이 들었다고. 작년에는 시리즈 A 때보다 2배가량 높은 기업 가치를 인정 받고 시리즈 B 투자를 316억 원 규모로 유치했다. 투자사로는 포스코캐피탈, 미래에셋, Neoplux, LSS, 타임폴리오, LHC, IBK 기업은행, IDG Capital 등이 참여했다. 물론 시리즈 A 때에 비해 다소 높아진 가치 때문에 투자를 주저하는 분위기도 있었다. 하지만 재정적으로 탄탄하다는 점, 자동차 OEM과의 오랜 협업에서 얻은 노하우 등을 어필한 것이 통한 걸까. 아니면 어떻게 만들어서 누구에게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확신, 기술력과 세일링에 대한 자신감이 그들을 빛나게 한 걸까. 200억의 투자 유치를 기대했던 그들의 손에는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은 자금이 주어졌다. 그렇게 누적 투자 금액은 472억 원을 기록했다. 이선영 COO는 이어 다소 생소할 수 있는 투자사인 IDG Capital에 대한 설명도 더했다. “IDG Capital은 국내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중국에서는 Top 5 안에 드는 유명한 벤처 투자사입니다. 중국의 구글로 알려진 바이두(Baidu) 등에도 초기에 투자한 글로벌 벤처 투자사죠. 현재는 스트라드비전의 주력 고객사가 독일이지만 곧 중국 진출을 확대할 계획인데, IDG Capital의 시리즈 B 투자가 이러한 과정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역량 있는 인재, 그것이 또 한 번의 도약에 필요한 힘

이선영 COO는 시리즈 B 투자 유치에 뛰어든 계기의 첫째로 “많은 인재를 데려오고 싶었다”는 말을 꺼냈다. 각고의 노력 끝에 스트라드비전만의 차별화된 소프트웨어를 구현했으나 1~2년이 지나니 신생 중국 업체들이 빠르게 따라오는 것이 눈에 보였다. 중국 업체들의 경우 천억 원대의 자본 규모에, 몇 백 명 단위의 엔지니어들과 시작해, 당장 실적 없어도 기업 가치가 순식간에 5~10배 이상 증가하는 것이었다. 스트라드비전도 중국 진출을 목전에 둔 만큼 우선 업계의 우위를 선점한 이스라엘 업체를 따라잡는 데 주력했고, 후발 중국 업체와의 기술 격차를 큰 폭으로 벌리기 위해서는 다양한 역량의 엔지니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렇다면 지금 꼭 필요한 인재는 어떤 사람일까. “글로벌 넘버원이에요(웃음). 저희가 해결해야 하는 사안들이

- 2018
 - 02월 TI Design Networks 참여, Automotive World 참가
 - 03월 르네사스사가 지원하는 R-Car Consortium Gold members 대상 프로모션 진행
Tier-1 Projects 수주-Germany, China, Japan, Korea, US 그 외 프로젝트 시작-Mobile, Surveillance, Localization
 - 06월 Series A 투자 유치-현대차, 현대모비스, GB(Global Brain), 한화투자증권
 - 10월 SV Tech, US 설립
- 2019
 - 콘퍼런스 참가-CES, NVIDIA GTC, EVS
 - 06월 CVPR 논문 게재
 - 08월 SVNet 적용 양산차 생산 개시-중국
 - 10월 ICCV 논문 발표
 - 12월 Series B 투자 유치-Posco Capital, IDG Capital, IBK, 미래에셋벤처투자 외



전폭적인 지원의 시리즈 B, 스트라드비전에 날개를 달다

2014년, 포항공대 산업단지 내에 전봉진 연구소장과 선후배 연구진들 몇 명이 모여 창업한 스트라드비전. 이제는 미국, 독일, 한국, 일본에 100여 명 이상의 직원을 두고 전방위적으로 뛰어다녀야 할 만큼 규모 있게 성장했다. 부단히 노력한 결과가 그들을 오늘날에 닿게 했다. 회사 설립 4년째였던 2018년 43억 원의 매출을 기록한 것을 시작으로 2019년엔 60억 원을 달성했다. 이러한 성장세가 모두 프로그램이 양산되기 전인 것을 감안하면 2020년 올해 매출은 150억 원도 거뜬하리라고 예상된다.

스트라드비전은 시리즈 B를 통해 유치한 투자 금액 316억 원 중 절반에 이르는 150억 원가량을 독일 협력사와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투입할 계획이다. 2020년 3분기까지 독일 슈투트가르트 또는 뮌헨 근교에 지사를 개설하겠다는 의지도 있다. 이를 통해 벤츠·BMW·아우디·폭스바겐 등 자동차 제조사와 1차 벤더들을 대상으로 연구·개발(R&D)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데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이선영 COO는 “글로벌 시장에서 레벨2 수준의 자율주행 솔루션 고객사 구성을 살펴보면 독일 기업이 50%를 차지한다”며 카메라 기반의 자율주행 객체 인식 기술을 보급하는 전진기지로서 독일이 최적지라고 설명했다.

약 50억 원은 중국 자동차 기업과의 협업에 쓸 계획이다. 최근 버스·덤프트럭·크레인 등 상업용 차량 200만 대에 ADAS(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s,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를 장착하는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이어 2021년까지는 중국 상하이에 지사를 설립해 중국 시장 개척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100억 원 규모의 R&D도 추진한



상당히 어려운 수준이기 때문에 스스로 아이디어를 내고 또 돌파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해요. 특히 B2B 사업이다 보니 구현하려는 기술 개발의 방향이 향후에도 고객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기술인지의 관점에서 접근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제품을 최적화해서 제공하려는 마인드를 가진 한 분 한 분의 전문성이 가장 중요해요. 배경이나 학벌, 성별, 지역 등은 채용과정에서 완전히 배제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역량을 갖추고 있다면 회사는 그런 분들이 날개 달고 날 수 있게 구조를 만들어놔야죠. 개인별 실력으로 승부할 수 있는 업무도 많아요. 직원들 자체가 자기 계발과 지적 호기심에 의지를 불태울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업계에서 가장 최선의 기술들이 모여 드는 곳이니깐요(웃음).” 뿐만 아니라 사업 확장성을 가진 자율주행 로봇, 드론 등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이 COO는 말했다.

“한국의 자동차 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지키고 있는 중요한 포지션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들을 뒷받침해주는 소프트웨어 분야에선 아직 추후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국내 자동차 업계가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다면 국내 소프트웨어가 세계 시장에서 널리 쓰이게 될 날도 머지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자동차 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지키고 있는 중요한 포지션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들을 뒷받침해주는 소프트웨어 분야에선 아직 추후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국내 자동차 업계가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다면 국내 소프트웨어가 세계 시장에서 널리 쓰이게 될 날도 머지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다. 감시용 카메라 소프트웨어 혁신에 초점을 맞췄다. 라이다(LiDAR)와 레이더, 카메라의 신호를 통합 분석하는 '센서 퓨전' 기술 수준을 높일 예정이다. 운행하는 차량의 전방과 후방, 측면에 접근하는 위험 물체를 완벽하게 인지하는 데 자금을 집중 투입하겠다는 생각이다.

CES 2020에 참석했던 당시 김준환 대표가 “안전한 도로 환경은 물론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완전히 바꿀 자율주행 기술의 미래를 열 것이다”고 밝혔던 포부가 떠오른다. 대개 앞으로 5년 또는 10년을 향한 다짐으로 들리는 포부가 스트라드비전이라는 필터를 거치니 한 해 목표 정도로 축소된다. 지금까지 보여준 근성과 집념이라면 가속페달을 밟은 듯 날아오를 것이 자명해 보인다.

